

# 화순읍 중·고교 신설 급하다

### 초등 4개교 불구 중·고교는 2곳 불과 학생수 급증 ... 교육청선 "일시적 현상"

학생수 증가로 화순읍에 새로운 중·고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화순읍은 현재 화순초와 만안초, 화순 제일초, 오성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가 있으나 중·고교는 각 2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화순중과 제일중은 학생수 증가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교실을 증축하고 여학생 등 특별 활동실을 개조해 20학급에서 29~30학급으로 학급수를 늘렸다.

현재 이들 학교는 한 학급당 학생수가 37명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에는 38~40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수가 급증하면서 운동장과 과학 실험실, 식당 등 20학급 규모에 맞게 조성된 관련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화순군과 화순 실업고 역시 지역

중학교 졸업생보다 수용 인원이 적어 매년 수십여명의 학생들이 광주 등 타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다. 화순지역은 지난 90년대 중반 광덕택지지구 조성되면서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유입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취학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다. 내년에도 중·고생 150여명이 증가하고 오는 5년뒤에는 1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화순교육청은 학생 수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학교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화순군도 지난해 11월 광덕택지내에 조성돼 있던 학교예정 부지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부모들은 지난 9월 학교신설 추진조사 위원회를 결성, 학교와 교육청 등을 방문해 중·고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백남수 제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택지개발과 녹십자 백신공장 이전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4개의 중·고교로는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새로운 중학교를 신설하자는 의견과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현재의 화순고를 중학교로 변경하자는 안 등 5~6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벼 수확 "참 재밌어요" 서울 대치동 부녀회원 80여명은 지난 15일 강진군 도암면 다산 청정미 생산단지에서 흙태를 이용한 벼 수확 등 친환경농업 현장체험을 했다. 부녀회원들은 이날 도암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600가마(20kg 들이)를 구매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유황 약오리'를 아십니까?

강진 칠랑면 이재복씨 친환경 오리사육  
미생물 등 1년간 먹여 연 7억여원 매출

"한마리에 20만원을 훔가하는 유황 약오리를 아십니까" 강진군 칠랑면 삼흥리에 있는 모랭이 오리농장 대표 이재복(53)씨가 친환경 오리재배로 연간 7억5천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진> 이씨는 연간 15만 마리의 오리를 유황 미생물과 유황을 이용해 사육하고 있다. 일반오리의 경우 보통 45일 사육 후 출하하는데 반해 유황 약 오리는 유황을 1년간 먹여 키워 환암치료와 기력증진, 보양식으로 제공한다. 이씨가 현재 시험 사육하고 있는 유황약 오리는 200여 마리로 마리 당 20만원을 넘는다고 지난 2002년부터 본격화된 모

## '서편제 고장' 보성서 소리축제

20·21일 이틀간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지난해 대통령상으로 격상된 정통 판소리 경연대회 '제 10회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가 20·21일 이틀간 보성에서 열린다. 첫날인 20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예선이 초·중·고등부와 신인부, 대학·일반부, 명창부로 나눠 열린다. 특히 명창부는 대통령상 수상에 대한 열띤 경연이 기대되고 있다. 또 서편제 보성소리 전수관에서는 신인부와 대학·일반부의 전국 고수경연대회 예선도 펼쳐진다. /보성=안구일기자 gjahn@

## 군부대 저질 돈육 납품 의혹

가공용 납품 제보에 ... 농협·군 수사기관 조사 나서

나주 축산물공판장에서 저질 돈육이 군부대에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부대와 농협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지역 모 군부대에 따르면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소시지나 햄 등 가공식품용으로 쓰이는 돼지고기 1천600kg이 납품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일부 물량을 반납하고 군 수

## 담양군 지역 농·축산물 판촉 나선다

판매 사업단 구성 수도권 등 직거래 행사 추진

담양군이 지역 농·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담양군은 다음달 단장 1명, 반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판매사업단을 발족한다. 사업단은 재경 담양군 향우회 사무실 부근에 전시판매장과 사무실을 갖춘 담양 농·축산물 직판장을 설치해 지역 농협, 축협 등과 판매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수도권 및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직거래 행사를 하고 쌀, 멜론, 밤, 토마토의 출하시기에 맞춰 대기업, 학교, 병원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판촉행사를 벌일 방침이다. 군은 내년부터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해 온라인 판매도 강화할 계획이다. /담양=차재희기자 jhw@

## 해남 황토인삼 수확 신나요

화산·산이면 등 6년근 103t ... 41억 농가소득 기대

해남지역에서는 지난 10일 화산면 안정리를 시작으로 산이, 마산면 등 19.4ha의 인삼 밭에서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 수확할 인삼 가운데 6년근 103t은 인삼공사에서 전량 구매해 41억여 원의 농가 소득이 기대된다. 해남지역 인삼 재배면적은 175ha로 전남지역의 25%를 차지하는 등 지역 최대 인삼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 인삼은 외양이 깨끗하고 조직이 치밀해 홍삼 제조용으로 가장 적합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은 황토 인삼 특품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삼을 지역 주력 특산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정광훈 목사 초청 제20회 광주광역시 북음화대성회

22일(목) 회개와 용서의 밤 23일(금) 섬김과 통사의 밤 24일(수) 은혜와 속죄의 밤 25일(목) 나라사랑의 밤

## 초대의 글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와 버섯같은 허박을 주었고, 동지끼리 나누어 먹게 한 유익한 음식인 밤과 호박을 주었고, 겨울의 추위를 달래주는 사과와 배를 주었고, 가을의 향기를 풍겨주는 사과와 배를 주었고, 가을의 향기를 풍겨주는 사과와 배를 주었다.

장소: 구동실내체육관 (광주공원)  
주최: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일시: 2007년 10월 22일 - 25일